

2013
06

이달의 주요뉴스

글로벌 미디어 시대, 한국형 언론중재 모델에 '관심' 집중
이화여대 로스쿨과 ADR 전문가 양성 MOU 체결

인터뷰

박준서 전 서울법원조정센터장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제156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 03 이달의 주요뉴스**
글로벌 미디어 시대, 한국형 언론중재 모델에 '관심' 집중
이화여대 로스쿨과 ADR 전문가 양성 MOU 체결
- 04 인터뷰**
승자가 되려고만 하는 소송 선호 문화 대신
공존의 조정 문화가 필요
- 박준서(전 서울법원조정센터장)
- 06 위원동정**
- 07 위원회 소식**
- 08 신 동의보감**
중년의 불청객 노안
- 09 위원단상**
좋은 남편과 아내 만들기
- 10 외국 언론인 초청 후기**
소통이 필요한 한·중 관계, 양국 언론의 역할은?
- 11 마이 힐링푸드 테라피**
해장국 이야기
- 12 인문학 산책**
성공한 남자일수록 '음욕의 눈'을 경계하라
- 13 조정후기**
분쟁해결의 첩경(捷徑) - 조정(調停)
-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 2013. 06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3년 6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시대, 한국형 언론중재 모델에 ‘관심’ 집중 - 17개국 언론인 23명 위원회 방문

- 17개국 해외 언론계 인사 23명이 위원회를 5월 28일 방문했다.
- 위원회는 방문 인사들에게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의 언론현황 및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한국 전통의 비빔밥과 막걸리를 함께 하면서 ‘한국의 맛’을 소개했다.
- 정학철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인터넷과 SNS 등과 같은 매체의 발달로 정보전달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또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위원회의 언론분쟁 해결 절차는 신속하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오광진 사무총장은 “위원회 조정절차는 법원 판결과 달리 양보와 타협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는 절차로 화해 · 조화 ·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주평화포럼 참석을 위한 해외 언론인들의 방한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이날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 언론인 초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네덜란드 지오그래피(Geografi) 잡지사, 리비아 국영방송국, 중국 선양(沈阳)TV 등 17개국 22개 언론사의 외국 언론인 23명이 참석했다.



이화여대 로스쿨과 ADR 전문가 양성 MOU 체결

- 위원회는 5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전효숙)과 갈등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권성 위원장은 “언론조정 · 중재제도와 같은 소송 외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의 가장 큰 장점은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향후 ADR제도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 전효숙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로스쿨 학생들이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실무학습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언론조정중재제도 관련 실무수습 및 ADR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양 기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승자가 되려고만 하는 소송 선호 문화 대신 공존의 조정 문화가 필요

박준서(전 서울법원조정센터장)

- 제15회 고등고시 합격
- 대구지법 판사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청주지법원장
- 대법원 대법관
-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 서울법원조정센터장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시간 50년, 법원조정센터의 틀을 만들고 명예롭게 은퇴한 초대 서울법원조정센터장 박준서 전 대법관을 만났다.

●● 대법관 퇴임 후 서울법원조정센터장을 맡아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셨는데, 센터장직을 수락하신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는지요.

당시는 소송 당사자가 수소법원(처음 소송제기를 받은 법원)의 조정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사들이 불리한 재판을 할 듯이 위압적인 언동을 한다고 변호사회에서 법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법원행정처 박병대 기획실장(현재 대법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박 실장은 가급적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정회부를 지양하고, 퇴직한 경력 법조인들에게 조정판사 역할을 맡긴다면 법원의 숙제인 전관예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조정판사의 권한을 가진 상임조정위원제도를 입법하여 서울과 부산에 조정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서울법원조정센터를 맡아달라고 했지요.

저는 수소법원 조정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조정센터의 신설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 되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즉석에서 센터장직을 수락한 것입니다.

●● 초대 센터장으로서 재임 기간 중 조정센터의 틀을 만들고 조정성공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기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셨는지요.

조정센터 초기에 조정신청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했으나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제소사건을 먼저 조정 회부하고, 조정이 안 되는 경우 재판을 하는 사실상의 조정 전치절차를 운영하자고 법률신문에 기고하며 제안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준영 조정담당 부장판사 주도로 재판개시 전 '조기조정'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조정센터로의 조정회부 사건이 대폭 증가됨으로써 조정센터의 역할이 정착되었습니다. 초기에 월 80건 정도이던 조정회부 사건이 4년 후 퇴임할 시점엔 월 1,000건을 상회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떼법(편집자 주 :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이 통용되지 않고 상식선의 객관적 기준이 적용되어 조정도 공정한 분쟁해결수단이 되도록 유념하며 운영했습니다.

조정이 재판보다 시간, 비용, 집행, 평판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고, 선진국에선 이미 재판 대신 조정, 화해, 중재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대세라는 점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대체로 30~40%의 성공률이 유지되었습니다.

● ●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은 소송 이전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적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조정, 화해보다 승패를 가리는 소송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분을 중시하던 오래된 성리학 문화와 최근 단기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쟁 문화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공존은 고려하지 않고 명분을 찾아 상대방을 제압하여 승자가 되려고만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조정이 활성화되려면 민사소송에서도 소제기 전 조정전치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문화에서는 분쟁 당사자 스스로 조정을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신청 시 인지대가 소제기 인지대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절차의 진행이 훨씬 빠르면서도 조정신청을 외면하고 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으로 조정 전치절차를 도입하면 많은 사건이 조정단계에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 ● 위원회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조정인이나 실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분쟁해결에 있어 조정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조정인도 법관처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조정인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쌍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적당한 질문을 통해 양 당사자가 자기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승패를 가려 이긴 자가 모두를 차지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정이 보다 윤리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약됨을 조정인이 인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분쟁에서 나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해결방안이 있음을 이해시키는 유연성의 덕목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엄격한 공정성과 상선약수(上善若水)(편집자 주: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즉,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항상 낮은 데로 임하는 물의 덕을 일컫는 말)의 유연성의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 ● 조정센터에서 처리한 조정사건 중 조정 특유의 유연성이 발휘된 사안이 있는지요. 또한 특히 기억에 남거나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 있는지요.

자형이 처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동생이 누이와 자형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자형에겐 승소하고, 차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누이에게는 패소하여 누이를 상대로 항소한 사건이 서울법원조정센터로 접수되었습니다. 자형은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이 없고 누이 명의로만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생이 자형이기 때문에 거래를 한 것이니 함께 빚을 갚는 것이 도리라고 누이를 설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남매가 차용금 연대채무를 이유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간단한 이유를 붙여 누이도 연대하여 빚을 갚도록 직권결정했더니 당사자가 수락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조정의 유연성과 장점이 발휘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 사건 외에도 부모형제간의 분쟁에서 혈륵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사례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 ● 오랜 기간 판사 및 변호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각 직책에서 분쟁을 대하는 관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요.

조정위원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금전만능주의로 돈에 너무 오염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차이 없이 돈이 수단인 아닌 목적이 되어 돈에 종속되어 있는 딱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판사, 변호사로서는 법에 의한 분쟁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나, 조정위원으로서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우리 사회의 뒤바뀐 가치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의 지배 이전에 올바른 교육과 문화운동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계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 ● 위원회는 올해 서울대, 이화여대 로스쿨과 조정중재 실무 교육 제공 및 학술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조정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과거 법조인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공방을 벌이거나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에서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얻는 것에만 몰입하고 판사는 승패를 가리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판결을 집행하지 못해 가산만 탕진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장래의 법조인은 당사자의 분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쟁해결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로스쿨 교육과정도 종전의 공방전이나 시비 가리기의 학습에서 탈피하여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충족시키는 분쟁해결의 학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학 로스쿨의 MOU 체결은 산학 연대처럼 좋은 모습의 발전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 ● 법조계의 대선배로서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관들은 개업 초기 많은 사건을 의뢰받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선별 수임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성공률 통계가 전관예우의 증거로 치부되어 전관예우의 인식이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일부 전관들이 변호사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전관예우의 오해를 가중시킵니다. 이 부분은 전관들이 크게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전관들이 전관예우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함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전관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정년까지 법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후에는 전관예우의 논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공증 등의 업무영역을 제공하는 사법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장 중인 조정센터의 조정도 당초 기획대로 전관들의 업무분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년 후에 현재와 같은 조정센터의 상근제도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크므로 비상근 근무도 가능하도록 현행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각 분야의 전관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활동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 50년 넘게 법조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 온 소회와 후배 법조인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이 되어 평생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조생활을 소신대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33년간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저의 과오로 고통을 당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과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지성무식(至誠無息)(편집자 주 : 끊임없고 지극한 정성, 즉, 씬 없이 정성을 다하자)이 명언임을 실감합니다. 법조생활의 소회는 결국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느 사회건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건전한 지성인 집단이 있어야 그 사회의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금전만능주의로 인해 천민자본주의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돈을 지배하는 상류집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돈이 먹이사슬의 정상에 있는 형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라는 지식인 집단이 지(知), 인(仁), 용(勇)의 덕목을 갖추고, ‘군자는 의(義)에 밝고 이(利)에 밝은 자는 소인(小人)’이라는 올바른 자세로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법조인들이 돈에 종속되지 않고 지, 인, 용의 품격을 지키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멋있는 지성인 집단이 되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 박진규 (홍보팀) • 사진제공 | 뉴스토마토

위원동정

COMMISSIONERS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정탁 위원(서울제6중재부,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전남 여수 디오션 호텔&리조트에서 ‘소통(疏通): 매체를 넘어 인간으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은 2012년 10월 한국언론학회 제3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5백여 명의 언론학자와 전현직 언론인 그리고 대학원생 등이 참석하여 모두 1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기자간담회 개최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사장)은 5월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이하 딤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

했다. 장 위원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제7회 딤프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으며, 딤프는 6월 15일(토)부터 7월 8일(월)까지 대구시내 주요 공연장 및 대구 전역에서 진행된다.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강연



홍숙영 위원(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5월 14일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강연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열린 ‘여우비@홍대’ 토크콘서트 강연

에서 ‘진정성이 담긴 나만의 스토리가 곧 스펙이 된다’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개인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며 강연을 진행했으며, 성공비결은 ‘하고 싶다’가 아닌 ‘하는 중이다’에 있다고 강조했다.

NEWS

권성 위원장, 중국 언론계 차세대 지도자 30명 접견



지난 5월 7일 중국 언론인들이 위원회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중국 언론인들에게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망(人民網)의 저우위보(周玉波) 한국지사장을 초청하여 '한중 양국간 분쟁 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중국 차세대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인민일보(人民日報), 신화망(新華網),新京報(新京報) 등 중국 22개 언론사의 언론인 30명이 참석했다.

중재위원 연수 개최



위원회는 5월 24일과 25일, 경주힐트호텔에서 중재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전국 중재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에서는 '다면적 접근을 통한 조정기법 향상과 언론조정'이라는 주제하에, 언론분쟁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권성 위원장은 "언론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중재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중재위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기능적인 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조정중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등의 내실도 든든히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임 중재위원 위촉

4월 16일 신임 중재위원이 위촉됐다.

중재부	성명	경력사항	비고
광주중재부	김명중	- 한국언론학회 이사 -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사장 - (현)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ADR 기구 직원과 워크숍 개최



위원회는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사회 각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ADR 기구 직원들과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ADR의 이해와 조정인의 역할 및 윤리', '조정 절차 및 특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하고, 각 ADR

기구의 업무절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1차 워크숍에 이어 6월 3일~5일(2차), 7월 18일~19일(3차) ADR 기구와의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오광건 사무총장, 경찰 대상으로 강의



오광건 사무총장은 5월 9일 경찰 대학에서, 5월 9일 경찰 홍보담당관 워크숍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과 시정권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오 사무총장은 경찰의 보도자료 작성 시 개인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힘써줄 것과 함께 자

살, 마약, 범죄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무처 인사 (6월 1일자)

▶ 전보

대전사무소장 남승균, 홍보팀 차장 최승민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
E-book 발간

위원회는 5월 6일 2012년 한 해 동안의 언론조정중재 신청사건 및 시정권고 현황을 담은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을 E-book으로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총 57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자료실'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중년의 불청객 노안

김태임 교수
연세대학교 안과



나이 들이 미덥이었던 때가 분명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륜을 갖추되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 시대에 살고 있다. 각종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외모로 나이를 가늠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나이 들의 징후가 바로 노안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노안의 진행은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흔히 나이가 들어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을 노안이라고 하는데 눈의 조절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일종의 노화현상이다. 우리 눈을 카메라에 비교하면 젊은 사람의 수정체는 최신식 자동 초점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처럼 보고자 하는 거리에 따라 순식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물체의 원근에 관계없이 사물이 잘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의 모양체근과 수정체의 기능으로 굴절력이 조절되기 때문인데, 가까운 것을 보고자 할 때 모양체근이 수축하고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면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원리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고 수정체가 딱딱해지면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노안이 생기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대개 40대 중반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눈의 조절력은 40세경에는 20대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60세 이후에는 조절력을 거의 상실한다. 먼 거리에서 가까운 곳으로 초점을 조절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중요한데 10대에는 대략 1초 미만이지만 50대가 되면 이보다 2~3배 이상 길어지게 되어 이런 변화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40대이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40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런 변화에 사람들은 대개 당황할 수밖에 없다.

노안의 증상으로는 편하게 책이나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남아 있는 조절력을 최대한 사용하기 때문에 근거리 작업을 조금만 해도 눈이 피로하고 심한 경우 두통이 유발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잘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흐려지게 되어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가까운 곳을 보다가 먼 곳을 보면 물체가 금세 초점이 안 맞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요즘까지도 노안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방법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돋보기 안경을 비롯해 노안교정 콘택트렌즈, 조절이 가능한 인공수정체,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성형술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거리 작업 시 부족한 조절력을 볼록렌즈 안경으로 보충하는 돋보기의 착용이다. 일반적으로 돋보기는 정확한 검사 없이 주변 사람들과 돌려쓰거나 대충 맞추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돋보기란 글씨가 똑똑하게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장시간 사용해도 두통이나 피로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돋보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눈의 피로를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검사 후에 자신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반복적으로 봐야 하는 경우라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한 안경에 먼 곳을 보기 위한 렌즈와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한 렌즈가 함께 들어 있는 이중초점렌즈 혹은 다초점렌즈도 사용 가능하다.

최근 백내장 수술 시에 조절이 가능한 특수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근거리 시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라식수술을 통한 교정도 가능한데 이 경우는 좌우안의 도수를 다르게 하여 각각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는 것으로 대개 55세 이전에 주로 시행하게 된다. 최근에 소개된 방법으로는 각막에 작은 조리개를 삽입하여 근거리 시력을 향상시키는 수술도 있으나 좀 더 많은 임상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노화를 막는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처럼 노안 역시 해결책을 찾아가는 중에 있다. 아직까지는 노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노안이고 모든 사람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꼭 필요한 치료인 만큼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도출이 안과의사들의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좋은 남편과 아내 만들기



김진희 위원
경남중재부
경남대 가정교육학과 교수

약수터 가는 길

김광규

내가 먼저 죽어야 마누라가 깨끗하게 치워주지
하지만 늙은 홀어미를 자식들이 얼마나 구박할까
마누라 병구완을 하고 무덤이라고 가꾸어 주려면
그래도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오늘따라 오르막길이 숨 가쁘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야 영감이 나를 물어주지
하지만 늙은 홀아비를 누가 곱살갓게 돌봐줄까
수의라도 제대로 입혀 보내고 제사를 챙겨주려면
그래도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한 가수의 콘서트에서 이 시를 들으면서 부부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과거에 비해 길어졌고,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혀 다르게 성장해 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어 50년 이상을 함께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해가 더해질수록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변 사람들이나 상담에서 만난 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갖지 못한 특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기보다 갖지 못한 것을 원하고, 그렇게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적하고 비난하며 지내는 부부들이 많다.

남편이 자상한 성격이라 부인이 외출할 때 데려다 주고, 귀가할 때를 기다려 주는 남편을 둔 부인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짜증난다고 한다. 반대로 남편이 무심해서 부인이 어딜 가던 관심이 없는 남편을 둔 부인은 남편의 무정함에 상처받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 남편과 아이들밖에 모르는 부인을 둔 남편은 “여자가 답답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푸념하고, 활동적인 부인을 둔

남편은 “여자가 너무 나돌아 다닌다”고 화를 낸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것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행복한 결혼은 나의 인식과 기대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배우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혼의 이혼율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배나 높다는 통계를 보면, 배우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행복한 결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과 전혀 다른 특성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자신의 기준이 같다면 불만은 생기기 마련이고, 주어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천생연분으로 보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살펴보면, 서로에게 “나와 함께해 주어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리 완벽한 배우자가 아닌데도 결혼해 준 것을 고마워하고, 함께해 주는 것에 기뻐한다. “너만 만나지 않았어도...”, “네가 조금만 달라져도...”라고 이야기 하는 부부는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결국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자를 평가하는 자신의 잣대를 변경하는 것이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 마음의 잣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부의 결혼만족도 곡선은 첫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낮아지고, 첫 자녀가 출가하는 시점에서 다시 상승하는 포물선의 모양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시간은 첫 자녀가 태어나기 전 2~3년간의 짧은 신혼이 아니라 자녀가 출가를 하고 이어지는 중·노년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수터 가는 길」이라는 시의 내용처럼 나이 들어갈 수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 싶다.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다시 한 번 쳐다보며,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남편과 아내는 그들 방식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이 필요한 한·중 관계, 양국 언론의 역할은?

한혜연
연속교육팀



5월 7일 인민일보(人民日報), 신화망(新華網),新京報(新京報) 등 중국 22개 주요 언론사 언론인 30명이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을 통해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한중 양국간 분쟁 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위원회를 소개하고 조정·중재 처리절차를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습니다. 중국 언론인들은 조정 이의신청 후의 처리절차, 초상권 관련 사례 등 여러 질문을 하며 언론피해구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광저우(廣州)에 의료분쟁 관련 ADR기구가 신설되는 등 ADR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 언론중재위원회의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의 저우위보(周玉波) 한국지사장이 ‘한중 양국간 분쟁 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부제는 ‘한중의 사이버 민족주의와 언론의 역할’로 인터넷이 반한(反韓), 반중(反中)감정이 확산되는 주요 통로임을 강조했으며 허위정보 유포와 언론의 오보로 인한 피해사례와 그 영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저우위보 지사장은 첫 사례로 2005년 한국에서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일이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저우위보 지사장은 한국의 단오제와 중국의 단오절은 큰 차이가 있다며 강릉단오제는 단오절 전후 50일 정도의 기간에 지내는 제사와 각종 전통문화 활동을 가리키며 중국 단오절은 중국 시인 굴원(屈原)을 기리는 명절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미디어는 “중국의 전통명절이 도난당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단오가 한국 것이라면 한방침술은 누구의 것인가?”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오보 사례로는 2008년 중국의 한 네티즌이 “한국 성균관대 박분경 교수가 쑨원(孫文)이 한국 혈통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글을 띄워 당시 이 글이 중국 신문과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분경이라는 교수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 오보는 그해 ‘중국 10대 오보’로 뽑혔습니다. 저우위보 지사장은 중국인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관영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 이러한 보도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 또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저우위보 지사장은 오보로 인한 반한, 반중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양국 언론이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후베이(湖北)일보 스귀(史果) 기자는 본 교육이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알게 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 누리꾼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5.64억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와 오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이를 통해 반한감정이 깊어진다면 양국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교류가 늘면서 오해나 분쟁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에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중국 언론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오해를 줄이는 것이 양국관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언론분쟁 예방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장국 이야기



여운규 차장
접수상담팀

점심 때 일이 있어 낙원상가에 갔다. 밥은 먹고 들어가야 하겠기에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곳을 찾는 내 눈에 허름한 식당 하나가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지나온 세월이 느껴지는 낡은 2층 건물에는 <소문난 추어탕>이라고 쓰인 허름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간판에는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옛날 조미료 상표가 옛 영광을 기억하는 듯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 집은 막걸리 한잔 하느라 종로3가 쪽을 기웃거릴 때 오가며 본 기억이 있는 집이었다. 호기심이 생겼다. 과연 소문난 추어탕의 맛은 어떤 것 일지. 저리도 오래된 조미료 상표를 그대로 간판에 붙여놓을 정도면 엄청난 내공의 노포(老鋪)(편집자 주 :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가 아닐까 하는 기대였다. 살짝 머뭇거리기도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소문이 났다는 그 추어탕은 정작 팔지 않았다. 그 어둡고 오래된 가게의 메뉴는 단 한 가지. 우거지를 넣고 끓인 해장국이 있을 뿐이었다. 가격은 2,000원. 믿을 수 없는 싼 값이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싼 밥값이 아니라 식당을 채우고 있던 손님들이었다.

나는 그 밥집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제일 어렸다. ‘젊은 손님’이란 말이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그냥 나는 어린애였다. 연세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어르신 열댓 분이 저마다 둥근 테이블에 너나없이 섞여 앉아 계셨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테이블을 찾아았는데, 내 등 뒤를 따라온 음식이 바로 내 앞에 놓여졌다. 전 세계 어느 식당에도 없는 초스피드 패스트푸드라고나 할까.

두부 몇 조각과 우거지가 들어간 뚝배기, 공기밥 한 그릇, 허여멀건한 깍두기 한 접시가 전부인 상을 받고 국물을 한술 떴다. 그 옛날, 훈련소 입소 첫날 먹었던 ‘배추두부찌개’를 연상시키는 건진찜질한 맛이였다. 고춧가루보다 사카린을 더 많이 넣은 것 같은 깍두기도 그저 얼큰할 뿐, 맛있는 김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거기서 먹음직스러운 건 오직 밥 그 자체였다. 하얀 쌀밥만큼은 금방 한 것처럼 기름졌다. 낡은 건물, 멀건 국물, 말없이 그걸 먹고 있는 연로한 손님들 사이에서 하얀 쌀밥의 존재감은 이질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빛나는 것이었다.

묵묵히 밥을 먹던 내 앞자리에 어르신 한 분이 비틀거리며 앉았다. 역시 음식은 어르신 등 뒤를 따라와 놓였다. 어르신은 수저를 들다 말고는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여기 깍두기 말고 다른 김치는 없어요?” 했다. 2천 원짜리를 드시면서 어인 까탈이 실까 하던 생각은 어르신의 다음 말쑈에 사라졌다.

“내가 이빨이 없어서 이걸 못 씹어...”

아줌마는 말없이 밥공기 하나를 내려놔다. 거기엔 깍두기 국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르신은 아무 불평 없이 깍두기 국물을 한 모금 드시고는 천천히 밥술을 움직였다.

2천 원을 돈통에 넣고 거리로 나섰다. 길거리엔 많은 사람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그런 식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나는 방금 빠져나온 낡은 건물을 다시 돌아봤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었다. 언젠가는 비집고 들어가야 할 자리에, 나는 너무 일찍 앉아 있었던 것일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쌀밥에 윤기가 흘러서 그랬을 거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성공한 남자일수록 ‘음욕의 눈’을 경계하라

최효찬
칼럼니스트



1821년 7월, 열아홉 살의 어느 시인이 자신의 연인 아델 푸세에게 구혼하기 위해 파리를 출발해 걷기 시작했다. 장래가 없는 시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던 그녀의 부모는 어느 때처럼 파리 근처에서 여름 별장을 빌린다면 그가 찾아와 휴가를 망쳐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파리에서 좀 떨어진 드뢰(Dreux)에 별장을 빌렸다. 드뢰는 파리 서쪽에서 96킬로미터 떨어진 유서 깊은 소읍으로 노르망디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그렇게 멀리까지 역마차를 타고 가려면 당시 비용으로 25프랑이 들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에게 그만한 돈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튼튼한 다리가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부모는 7월 15일에 파리를 떠났고, 그는 그들의 뒤를 따라 16일에 파리를 떠났다. 그는 사흘 만인 19일에 드뢰에 도착해 20일에 그녀의 부모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았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열혈 청년은 이후 프랑스의 대문호로 떠오른 빅토르 위고(1802~1885)다. 역사가 유진 웨버는 젊은 시절의 빅토르 위고가 사랑에 빠져 먼 거리를 걸어갔던 일을 이같이 묘사했다. 빅토르 위고는 29살(1831)에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을 발표해 작가로 명성을 확고히 했다. 그녀의 부모가 장래가 없다고 멸시한 지 정확히 10년 후의 일이었다. 어쩌면 이들 부부는 사위감을 보는 눈이 ‘까막눈’이었나 보다.

빅토르 위고는 드뢰에서 결혼승낙을 받고 2년 후 아델 푸세와 결혼에 골인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소꿉친구였는데 당초 형의 애인이었다. 형은 동생에게 애인을 빼앗기자 그만 미쳐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혼생활은 행복했을까? 결혼 9년째, 빅토르 위고가 명성을 날릴 즈음 부인 아델 푸세가 먼저 바람을 피운다. 외도 상대는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비평하던 친구이자 평론가인 샤를 생트뵈브였다. 빅토르 위고의 반응은 의외였다.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시 인기 절정의 여배우인 쥘리에트 드루에와 맞바람을 피운다. 이들의 불륜은 쥘리에트 드루에가 여든한 살로 죽는 날까지 지속된다. 그 유명한 ‘장발장’의 원고를 정서하면서 빅토르 위고의 작품 활동도

운 사람도 부인이 아닌 쥘리에트 드루에였다.

그 와중에 빅토르 위고는 화가의 부인과 또 불륜에 빠진다. 서른아홉 되던 해 화가인 프랑수아 비아르의 부인을 보자 그만 매혹되고 만 것이다. 불륜은 4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프랑수아 비아르가 고소해 간통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렸다. 비아르 부인은 철창신세를 져야 했지만 그는 귀족원 의원 이어서 수감되는 망신은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반정부인사로 찍혀 영국 저지 섬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에도 부인과 살면서 쥘리에트 드루에를 이웃에 와서 살게 했다. 이때 그는 쥘리에트 드루에를 옆에 두고도 그녀의 하녀와 관계하기를 더 좋아했다. 당시 나이는 일흔 살이었다. 그는 급기야 며느리와 사위들로부터 손자·손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작가는 작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빅토르 위고만큼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이도 드물다.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는 문학작품, 권력에 맞선 항거의 정신은 그를 이상주의적 작가이자 정치인으로 자리 잡게 했다. 지금까지도 프랑스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빅토르 위고는 사실 사생활에서는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닌 셈이다.

빅토르 위고의 둘째 딸 아델 위고도 아버지만큼 열정적인 구애로 유명했다. 아델 위고는 영화 ‘아델 H. 사랑’(1975, 아자벨 아자니 주연)의 실제 주인공이다. 작가적 소질이 있었던 그녀는 영국 여행 중 군인이었던 알버트 핀슨과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그가 미국으로 발령 나자 무작정 미국행을 감행한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이미 식은 상태였다. 그녀의 사랑은 집착으로 바뀌었고 결국 정신병에 이르고 만다. “사랑의 달콤함을 맛볼 수 없다면 그 쓴 맛에 나를 바치겠다.” 아델 위고의 이 말은 아버지 빅토르 위고의 ‘왕성한 불륜’과 닮아 있는 것 같다.

빅토르 위고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음욕’에 눈먼 사랑이 아닐까.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고위 공직자의 잇단 성추문도 음욕에 눈먼 사랑이다. 모든 남자, 특히 성공한 남자일수록 음욕의 눈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분쟁해결의 첩경(捷徑) – 조정(調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사(意思)와 무관하게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다. 10년 가까이 분쟁 당사자들 틈바구니에서 업무를 수행해 본 조사관으로서 어떠한 분쟁이건 그 해결의 첩경은 조정절차가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조사관이 속한 중재부(仲裁部)에서 처리했던 조정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 말 한 종합편성채널은 사이버종교의 폐해(弊害)에 대해 짚어 본다는 지방의 한 교회에 대해 방송했다. 그 내용은 목사가 교인을 감금한 후 세뇌교육을 시켜 가족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신도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현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목사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되었고, 이 때문에 신도들이 대거 이탈해 교회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의 명예도 크게 실추되었다면서 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 원활한 조정을 위해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피신청인 측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신청인과는 아예 대화도 하지 않으려 했다. 신청인인 목사는 해당 방송이 불공정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도 신고를 했으며, 더 나아가 프로그램 제작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였다.

양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어 분쟁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다. 중재부는 먼저 사실조사를 해봤다. 조사결과 방송내용이 전혀 문제없다고 보기가 힘들었다. 신청인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프로그램이 제작된 정황이 보였으며, 특정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당일 중재부는 피신청인 프로그램이 공익(公益)을 위해 나름대로 가치 있는 방송으로 대체적으로는 정당했다고 인정하며 피신청인 측의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면서도 중재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조목조목 짚어 주었고 피신청인 측은 지적사항을 대부분 수긍했다. 피신청인 측은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심리석상에서 신청인에게 사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에게도 해당 방송 내용에 공익성 및 정당성도 일정 부분 인정됨을 강조하고,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분쟁을 완전히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정보도나 금전배상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 바란다는 신청인과, 각 기관에 제기된 민원이 모두 취하(取下)되기를 원한다는 피신청인 측이 서로 접점(接點)을 찾게 되었다. 수개월을 끌며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당사자간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의외로 쉽게 마무리된 것이다.

덕분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더 이상의 행정력(行政力)을 소비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사건은 조정절차의 강점(強點)을 아주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다.



안백수 조사팀 차장
서울제6중재부 조사관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재산상 손해 사례 | 특정제품이 효과없다고 단정한 보도, PR보도로 조정성립

모 방송사는 정보오락프로그램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루면서, 강화마루 제품이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없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강화마루를 생산·판매하는 A 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이 다른 바닥재에 비해 바닥소음 감소 및 층간소음 차단에 효과가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층간소음 차단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을 설득, PR방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 개인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 300만 원 배상

모 방송사는 취업을 위해 소위 '스펙'을 관리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실태를 보도하며, 신청인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상장과 수료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학번 등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공중파 화면에 그대로 노출했다. 신청인은 방송 이후 신원불명의 남성들로부터 음란전화와 와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및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모자이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박길자 _ 5월호에는 평소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봄철 산행과 건강한 관절 만들기'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60대의 나이에 히말라야 산행에 오를 김봉수 위원의 글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나이를 핑계로 너무 움츠렸던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민씨의 '엄마와 미역국'을 읽고서, 작년에 아이를 출산한 막내딸이 떠올랐어요. 앞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좋은 기사를 많이 실어주세요.

정경석 _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언론  사람]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5월호에는 손지에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의 인터뷰가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이미지 홍보와 K-Culture의 글로벌 전파에 있어 아리랑TV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잘 인지하게 되었고, 지구촌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언론인이 키워준다는 점 잘 역설해 주신 것 같네요. 참언론인의 본분을 느끼고 그 해안을 키우는 데 [언론  사람]이 많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말숙 _ 낭만주의의 대표작가 워즈워스에 대한 '시간의 점' 칼럼이 인상 깊었습니다. 언젠가 멋진 자연 풍경을 보았던 것을 생각하고 다시 삶의 기운을 되찾았다는 글은 제 경험 또한 생각나게 했어요. 작년 이맘때쯤, 인생의 크나큰 시험을 준비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속리산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산꼭대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자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근심 걱정을 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바로 옆 기사인 '봄철 산행과 건강한 관절 만들기'는 산에 핀 봄꽃들에 취해 간과하기 쉬운 무릎관절 건강을 돌아보게끔 했고, 60대가 되어서야 만날 수 있었던 '신들의 세계' 히말라야 등반기는 위원의 '원초적 본능'뿐만 아니라 제 본능 또한 두근거리게 만드는 군요. [언론  사람]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다음호도 기다릴게요.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_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_ 묻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_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_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언론중재
Eye-Net 서비스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 구제 교육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 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R 전문 교육과정

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조정 · 중재 실무, 설득 · 협상 커뮤니케이션, 언론대응기법 등에 관한 실질적인 분쟁해결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언론피해구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조정 · 중재사례 및 법원판례 등 언론보도 피해 및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정 · 중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기업, 언론인, 대학(원)생 등

| 비용 | 무료

| 문의 | ADR 전문 교육과정 ☎02)397-3092~4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02)397-3062~4

